

“불법홍포 우리 손에 맡겨주세요”

‘제13회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 연수회’ 공주 마곡사에서 개최

충청지역의 포교를 이끌어갈 ‘예비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포교사단 대전충청지역단 주최로 7월 26~27일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제13회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연수회’에는 범용 스님(마곡사 주지), 상초 스님(마곡사 포교국장), 전채근 대전·충청지역 지단장을 비롯해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 50여명이 참석했다.



7월 26~27일 마곡사에서 열린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 연수회 참석자들.

연수회 입재식 법에서 범용 스님은 “천년고찰 마곡사에서 예비 포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불법과의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만이 포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일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채근 지단장은 인사말에서 “대전·충청지역에서 불법홍포에 앞장서서 보살도를 닦는 지역단에 정식 등록되어 각 분야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포교사가 200여 명이나 된다”며 “대부분은 사찰운영 지원을 비롯해 군포교, 경찰포교, 어린이포교와 사회복지 분야 등 각 계에서 스님을 보좌하며 활동하게

나 지역 팀 소속으로 여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으니 모두 최종 합격해 불법 홍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회는 법회 의식의 이론

강의와 불교의식 집전 실습 등 포교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불교의식 집전의 경우 총복 3개조, 대전 1개조, 천안 1개조 등 조별로 나누어 진행됐다.

조별 활동의 경우 각 조에서 한 명씩 다른 조에 가서 실제 사찰을 안내하듯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간단히 한 후 친절히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때 설명하는 사람은 각자가 채점자가 되어 ‘무엇을, 왜, 어떻게’ 등의 방법으로 순위를 정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연수회가 진행된 마곡사에는 대웅보전(보물 제801호)·대광보전(보물 제802호)·영산전(보물 제800호)·5층 석탑(보물 제799호)등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어 ‘예비 포교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교육의 현장이었다.

이번 방법은 자신이 해설가와 관객 모두의 입장이 됨으로써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 낼 수 있고, 포교 대상에 따라 해설방법에 차별을 두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연수회를 회향하면서 전채근 단장은 “각 사찰과 포교사들의 힘으로 모아 포교회관을 마련해 여법한 포교사단 지역단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교구본사에서 지역단과 신도회의 바자회 운영 등을 통해 자기관리 아름다운 정성이 담긴 포교회관을 건립을 위해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회 중에는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 면접과 포교사 대학원 전문포교사 면접이 함께 병행됐다. 포교사 1차 합격자의 팔재계 및 품수식은 8월 30일 송광사에서 개최됐다.

손효선 기자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 불화작가 일연 이희영 보살

“화폭 가득 불심 담아요”

“기와의 그려진 부처님을 본 적 있습니까?” 보통 그림이라 하면 종이에 선과 색이 조화를 이뤄 그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희영(49) 보살은 깨진 기와에 그림을 그린다. 그렇다면 왜 기와에 그림을 그렸을까.

그는 “서양화를 그리며 소재에 갈등을 느껴 붓을 놓고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우연히 불화를 그리게 됐는데, 소재의 풍부함과 마음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

던 청주 무심갤러리에서 ‘보살상(관세음보살·지장보살)’으로 첫 개인전을 열게 됐다. 그는 “부처님과 스님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화폭에 담아 불화를 조성한다”며 “작품을 귀하게 봐주시는 많은 스님들과 대중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희영 보살의 이런 마음이 통한 것일까.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에서 전시회를 연 것을 비롯해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주최 전시회에서



우연히 그린 ‘불화’의 넉넉함에 빠져... 11월 29일 열릴 전시회 준비에 비지땀

빠져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사찰에서 흔히 버려지는 깨진 기와들은 ‘부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서진 기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불화를 그리는 덕분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있다는 여유로움으로 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희영 보살은 옛 단봉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정장)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단정장 후보인 연암 박정자 선생을 사사하며 불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 세계를 찾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그림속 부처님과 합장 공경하는 중생의 마음이 함께하도록 대자대비의 마음을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느새 그림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그는 지난 2002

불교를 대표해 지장보살상을 전시하기도 했다. 이 모두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은 것은 오랜 노력의 산물이었다.

현재 그는 삼복 더위에 불구하고 11월 29일~12월 5일 여는 전시회 준비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그가 불화를 그리는 마음자세는 늘 한결같다.

“내면의 평화로움을 통해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붓으로 그려내는 긴장의 연속이다.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과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기도 정진의 시간을 갖듯이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불교미술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영 보살은 “단체 회장으로서 불교미술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는 한편, 작가로서 더 좋은 작품으로 사부대중 앞에 서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효선 기자

‘직지’ UN사무총장 공관으로

영인본·금속활자판 등 2016년까지 내부에 상설 전시



영인본 <직지심경>

유네스코(UNESCO)로부터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됨으로써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이 미국 뉴욕에 있는 반기문 UN사무총장 공관에 상설 전시된다.

이와 관련, 청주고인쇄박물관 남봉의 관장 등 3명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미국 UN사무총장 공관을 방문해 공관 내부 5㎡ 규모의 공간에 직지를

전시했다. 이곳에 전시된 직지는 영인본(가로×세로 35×25cm), 금속활자판(마지막 장·49×30cm),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증서(46×34cm) 등과 영문·한글로 된 설명문이다.

이렇게 UN사무총장 공관에 전시된 직지는 반기문(64)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1년 12월 말에 이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총장을 연임하는 관례에 따라 2016년 12월 말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청주시 직지 관계자는 “UN 사무총장 공관에 직지가 상설 전시되면, 이곳을 찾는 전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직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는 물론 직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직지는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에 금속활자로 간행한 책으로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 <직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직지는 상·하 2권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재 상권은 전하지 않고, 하권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중앙문헌실에 전하고 있다.

손효선 기자

경은사 보살좌상 충북도문화재로

‘강희오십년명 석감’도 지정

충북 제천시 백운면 경은사(주지 정암)의 ‘목조문수보살좌상(木造文殊菩薩坐像) 및 북장 유물’과 ‘강희오십년명 석감(康熙五十年銘石龕)’ 등이 각각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94호·제295호로 지정됐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목조문수보살좌상은 두건을 쓰고 있는 모습에 단정한 조각솜씨가 돋보인다. 이 불상은 1636년(인조 14)에 만들어진 조선시대 후기의 불상으로 높이 20cm에 불과한 작은 불상

이지만, 조선시대 후기 불상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목조문수보살좌상과 함께 충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강희오십년명 석감’은 석감의 뒷면과 측면에 명문에 의해 조성한 주인공과 연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석감 자체가 희귀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충북도 문화재 관계자는 “특히 경은사의 강희오십년명 석감은 조선 후기 석감으로는 유례가 드문 불교 유물”이라고 평가했다.

손효선 기자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재선거기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가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 재선거(60일 이내)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7월 28일 중앙종회 본과회의실에서 제194차 회의를 열고, 소유사찰인 향

지사의 미등록 사설사당 소유문제로 후보자적 상실판정을 받은 현조 스님에 대해 사찰로 불 수 없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제192차 회의에서 내린 현조 스님의 후보자적 없다는 판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복한 뒤 “6월 26일 처리된 법주사 보궐선거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성우 기자

(사) 한국결혼상담소협회에서 최첨단 맞선 프로그램 출시!



사단법인 한국결혼상담소협회 고문 해철 대성사 주지스님

- 스님출연 TV프로그램**
- KBS 아침마당 VJ특공대 무한지대Q
 - MBC 화제집중 김미희의 세계는 그리고... 6mm 세상담형 손석희의 시선집중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생방송 투데이
 - YTN 전국 네트워크
 - 불교TV 아름다운 사람들
 - 불교방송 BBS 초대석
 - 충북방송 충북, 충청인

국내, 국제 결혼정보업체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WedManager 2008**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 프로그램의 기능**
- 계약관리
 - 회원관리
 - 희망정보관리
 - 회원매칭관리
 - 성혼자관리
 - 물량회원관리
 - 주소록관리
 - 매니저관리
 - 홈페이지정보관리
 - 전국결혼상담소 연결기능 등!

주문 및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뉴페이스결혼소프트웨어

안녕하세요! 한국결혼상담소협회에서 개발한 최첨단 네트워크 프로그램 **WedManager 2008**입니다.

회원관리, 희망정보관리, 회원매칭관리, 성혼자관리, 물량회원관리, 주소록관리, 매니저관리, 홈페이지정보관리, 전국결혼상담소 연결기능 등!

문의: 043-732-5560 / 010-9422-8453

News !!!

매일 100개 이상의 공유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단 한개만 입력해두셔도 맞선 요청 전화가 달려 옵니다!!!